

蘇聯 學校教育의 이론가들

—蘇聯의 高等教育(完)—

金 東 圭

(高麗大 教育學科)

蘇聯의 高等教育

1. 蘇聯 學校制度의 발전과 전망
2. 蘇聯 高等教育의 理念과 政策變化
3. 蘇聯 高等教育의 교과 내용
4. 蘇聯 高等教育의 方法論과 特性
5. 蘇聯 學校教育의 이론가들

1. 概 觀

소련의 학교 교육을 위한 심리학이나 교육학에 있어서 이론을 개발한 학자는 대단히 많고 그 역사도 길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주고 있는 자극-반응 이론(S-R theory)의 대표자인 파블로프(Pavlov, I.P. : 1849~1936)가 있다. 그는 생리학자로서 1904 년도의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지만, 개를 실험 도구로 하여 條件反射와 無條件反射說을 내놓아 학습 이론에서의 '刺戟-反應說'을 수립했다. 이것은 그뒤에 미국의 손다이크(T. Thorndike), 왓슨(Watson), 스킨너(Skinner)로 이어지는 結合主義 理論家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는 死後에 「條件反射와 心理治療」(1941)라는 책이 출판됨으로써 후세의 상담 치료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특히 오늘날 미국을

중심한 심리학이나 여타의 사회과학 전반을 규정짓고 있는 이론인 行動主義(behaviorism)의 근원은 파블로프의 이론에서 찾게 된다.

그러나 소련의 사회주의적 이념 아래 학교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동들(피학습자)로 하여금 철저한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무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가에 관한 교육 이론은 벨린스키(Belinsky, V. : 1811~1848)와 헤르젠(Hertsen, A. : 1812~1870) 그리고 피로코프(Pirogov, N. : 1810~1881), 체르니셰프스키(Chernyshevsky, N. : 1828~1889), 우신스키(Ushinsky, K. : 1824~1870) 등등의 학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렇지만 1917 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치 체제와 문화 혁명이 구축되고 학교 교육의 이론은 다시 한번 혁명 정신에 적응하는 이론으로 개발되면서 브론스키(Bronsky, P. : 1884~1941)의 노동교육론, 마카렌코(Makarenko, A. : 1888~1939)와 크루프스카야(Krupskaya, N. : 1869~1939)의 집단주의 교육론이 대두되어 오늘날까지 소련의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기본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마카렌코와 크루프스카야의 집단주의적 노동교육론을 중심으로 그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보다 상세하게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2. 크루프스카야의 教育理論

1899년 레닌과 결혼한 그녀는 소련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부에서 특히 교육학 이론의 전문가로서 수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다. 그녀에 관한 저서의 選集으로 현재 일본의 明治圖書에서 출간된 것만 하여도 다음과 같이 11권에 이르고 있다.

- ① 生徒의 自治와 集團主義
- ② 校外活動과 集團主義
- ③ 幼兒教育과 集團主義
- ④ 教師集團과 集團主義
- ⑤ 社會主義와 教育學
- ⑥ 國民教育과 住民의 參加
- ⑦ 國民教育과 民主主義
- ⑧ 婦人解放과 教育
- ⑨ 教育內容과 教科書
- ⑩ 폴리테크니즘과 教育
- ⑪ 크루프스카야의 생애와 사상

1) 「生徒의 自治와 集團主義」의 概要와 評價

1910년의 전후로 쓰여진 이 책은 제1부에서 부르조아적 학교 자치에 대한 비판, 제2부는 종합기술교육의 학교와 생도의 자치, 제3부의 해설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의 내용은 당시 미국의 학교 교육에서 모의 재판 놀이를 통한 '사회과' 교육방법론을 극히 비교육적이고 비인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는 실사 어떤 아동이 학교에서 벌을 받을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재판은 피해야 한다고 體罰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아동들에게 自治力을 키워 주기 위하여 아동 노동(학생 노동)을 조직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을 위한 집단 조직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① 노동은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아동들은 자유롭게 때문이다.

② 노동은 아동들이 몸에 익힌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육체 노동만이어서도 안 된다. 즉, 그것은 아동들의 힘과 지

식 수준에 알맞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노래 지휘자의 일 같은 것이거나 구두방의 일만이 아니고 교사나 강사, 기타의 노동이 아니어서도 안 된다(너무 저급한 노동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과분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는 뜻: 필자 주).

③ 개개인의 경우, 아동들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알아야 하고 이해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아동들의 노동은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교외 작업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외 작업의 과정에서 사회 생활의 기초 지식과 능력을 기르게 되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사회적 필요성과 유용성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학교 노동은 탁아소, 보육원, 도서관, 박물관, 학용품 제작 공장, 농장, 소비조합, 공공 식당 등등의 상호 결합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그녀는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에 있어서의 아동 자치'라는 논문(1930년)에서는 국가의 정치 제도와 계급적 성격 목표를 결부시켜야 한다고 보았으며, 1917년 10월 혁명으로 종래의 부르조아적 학교 자치의 성격의 하나인 1910년경에 탄생한 少年團(boy-scouts)과 少女團(girl-scouts)은 타파되고 생산 현장인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의 하나가 바로 소련의 학교 사회에서 학생 조직의 대표적인 '소년개척단(pioneer)'인 것이다.

1927년에 집필한 그녀의 '教育學的 문제로서의 피오넬 운동'이라는 논문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다.

“우리들은 학교와 피오넬 운동과는 동일한 목적—아동 학생들을 새로운 체제의 부사 또는 건설자로 육성하는 것—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고 듣고 있다.

그런데 학교의 주요 목적은 학습에 있고 피오넬의 중심 목적은 훈련에 있는 것이다.

……피오넬의 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목적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키우는 데 주력하게 된다.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은 단지 노동 생산성을 높이거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사

회적인 조직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인간 관계물 이
룩함에 있다.”

“예전에는 ‘各人은 자신을 위하여, 神은 만민을 위
하여!’라고 했지만 지금은 ‘개개인인 萬人을 위하
여, 萬人은 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레닌의 구호에
따르는 것이 새로운 사회관이고 인간관인 것이다.”

결국 그녀는 아동 학생들이 학교의 공동 생활
을 통하여 참다운 自治力과 집단주의 정신을 함
양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근본적 목표라고 단정
하면서 그녀의 저서에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
의적인 부르조아 사회의 학교 교육을 시종일관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회주의적 가치관인 집단주의
정신의 함양은 어떠한 교과목을 통한 방법보다
는 ‘소년개척단’과 같은 조직 활동을 이용해야
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다음으로 그녀가 주장하고 있는 집단 정신의
함양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 원칙하에서 효
과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아동 학생들을 ‘피오넬’이라는 집단 조
직을 통하여 교육시킬 때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책을 읽히고, 반면에 집단과 협동의 가치
를 알게 하는 독서를 권장하며 노래를 같이 부
르고 같이 놀게 한다.

둘째, 서로가 친하게 사귀고 각자의 가정 사
정을 파악하여 돕고 이해하게 한다. 또한 숙제
도 서로 도우면서 풀고 먹을 것도 나누어서 갖
게 한다.

셋째, 흥미있는 공동 학습, 공동 독서, 소풍,
벽 신문, 작품집, 일기문 등등을 공동 출판한다.

넷째, 노동은 부과 받았을 때 서로가 분담하
되 상호 협조 아래 전체의 임무를 수행하고 공
동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킨다.

다섯째, 內的이고 自發的인 규율을 지키는 것
이다. 레닌의 논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자본
주의 사회에서는 강제적 규칙과 벌칙으로 임무
를 수행케 하고 있으나, 사회주의적 협동 사회
에서는 자치적인 규범과 통제로 임무를 완수하
는 것이다.

끝으로 집단적 작업 과정에서 획득된 지식과
기술을 공동 이익을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어
떤 작업에서라도 공동 목표, 공동 계획, 공동 작
업이라는 원칙하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2) 幼兒教育에 관한 理論

그녀의 다른 저서 「幼兒教育과 集團主義」는
1920년 전후의 여러 논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가정 교육이 집단주의 정신 함양에 얼마
나 중요한가를 선명하고 있는데 그 개요는 다음
과 같다.

크루프스카야는 家庭과 學校의 관계에서 케이¹⁾
(Ellen Key. : 1849~1916) 여사가 쓴 「兒童의
世紀」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나의 유일한 꿈은 어린 것들의 유치원이나 학
교가 사라지고 가정 교육으로 점차 바뀌어졌으
면 하는 것이다”라는 케이 여사의 말을 크루프
스카야는 “많은 어머니들이 밖에서 일하게 되었
고 또한 그녀가 자신의 의무를 훌륭하게 하지 못
하고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탁아소나 유치원
은 극히 중요하며 다수의 아동들에게는 고마운
것이 사실이다. 같은 또래의 놀이 친구가 없
든지 부모 자신이 교육 수준이 낮거나 교육시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는 논리로 반
박하고 있다.

집에서 어머니가 보통 아이들에게 별로 쓸데
없는 자질구레한 일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잔
소리로 하루를 보냄으로써 아이들의 성격을 망
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모아서 계획되고 훌륭
한 교사와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갖게 되면 훨씬
우수한 아동 교육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 크루프
스카야의 주장이다. 또한 아동들이란 혼자 집
에서 놀기보다는 여러 명이 어울려서 놀기를 좋아
하는 群衆本能이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고 보았
다.

“그런데도 케이 여사는 이러한 群衆本能을 싫
어하고 무시한다. 그러나 아동들의 군중 본능은
모방성과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만일 어떤
어린애를 12살까지 또래 집단과 격리시켜 키운

1) 스웨덴의 부인 평론가로 부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아동 애호를 강조한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다면 그는 사회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정보다 더욱 자유롭고 대담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마련이다.”

케이가 가정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동의 개성을 알게 되고 그에 의거하여 교육을 시킨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의 전반적인 조직이다. 만일 가족 성원이 동경심이 많거나 가족 성원이 사회성이 높다면 또는 근면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결합되어 있다면 가정이 아동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반대로 가족들이 태만하고 쾌락만 추구하며 냉담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가정 환경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해를 줄 뿐인 것이다”라고 그녀는 쓰고 있다.

크루프스카야의 아동 교육관은 결국 어릴 때부터 부모의 품으로부터 아동들을 떼어 내어 탁아소와 유치원 등의 집단 생활을 시켜야 하고 교육 내용으로는 생산 실습과 관련된 勞作教育課程과 方法論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규 학교 수준에서는 종합 기술 교육 제도가 바람직하며 전원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만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幼兒教育觀을 펼친 크루프스카야는 부인(학부모)들을 아동들과 가정으로부터 해방시켜 그 노동력을 사회적 공헌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國民教育論」의 주장

이 저서는 그녀가 1899년에 쓴 ‘婦人問題’, 1912년에 쓴 ‘靑少年과 學校’, 1930년에 쓴 ‘社會主義·共產主義 教育’, 1918년의 ‘종합기술 교육’, 1930년의 ‘教師의 문제’ 등으로 엮여져 있다.

婦人의 문제는 주로 婦人勞動者에 관한 글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현장에서 부인들이 보다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과 노동의 종류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만일 夫君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면 婦人은 남편의 하던 일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靑少年과 學校에서는 노동을 사랑하고 이해하

는 지식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學校內에서만뿐만 아니라 學校外의 作業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男女共學 문제에 있어서 그녀는 서로가 정신적인 교제를 한다는 전제에서 찬성하고 있기도 하다.

社會主義·共產主義 教育에 대한 그녀의 주장은 쫓소의 이른바 귀족 중심적인 자유주의, 자연주의 교육관은 극히 부르췌아적 교육 사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부르췌아 국가에서는 그것이 君主國이든 共和國이든 상관없이 학교는 수 많은 人民大衆을 정신적으로 노예화시키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교육이란 지배 계급의 교육관에서 해방된 자유교육,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하는 대중교육, 노동애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중심의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다.

종합기술교육에 관한 부분에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과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무조건적인 역사적 과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教師問題에 있어서는 “교사란 학생들과 주민들 그리고 교원 상호간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와 국제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집단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크루프스카야는 1869년 출생 당시에는 귀족이었고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변호사이면서도 당시의 전제 정치에 반대 운동을 펴는 사회주의적 운동가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에 우연히 학교의 서클에서 공산주의 이론에 접했던 것이다. 그녀는 공장에서 중노동을 하는 노동자들과 한편으로는 호화스런 계 사는 女地主 나지모바의 모습과 그 저택의 사치스런 개를 보고 분노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혁명가를 그리워 하였고 노동 현장에서 혁명 정신을 키웠으며 마르크스의 「資本論」을 많이 연구 탐독하면서 여러 권의 교육 관계 서적을 쓰게 된다. 레닌과 결혼한 것은 1899년 「婦人勞動者」라는 논문을 쓴 30살의 노처녀였을 때였다.

이밖에도 크루프스카야는 ‘自由學校라는 문제에 붙여’ (1909), ‘社會主義學校의 문제’ (1918),

‘社會主義教育의 理想’(1918) 등등 수 많은 논문이 있기도 하다.

3. 마카렌코의 生涯와 理論

1) 教育實踐의 生涯

마카렌코(Makarenko, A)는 1888년 소련에서 태어난 교육 이론가요 실천가이며 행정 관리이기도 하였다.

그는 1905년에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얻어 철도 학교의 교사를 하였다. 그가 근무한 크류코프라는 철도 학교는 당시 혁명 운동가들의 거점이었다. 노동자들이 항상 모였고 마카렌코도 그들과 어울려 혁명 운동을 도왔다. 그는 막심 고리키의 작품에 심취하면서 그의 작품으로부터 많은 감명을 받게 된다.

1914년 마카렌코는 사범학교에 입학하고 우등생으로 졸업하자 초급 철도 학교 고등부 장학관이 되었다. 이 때에 그는 10월 혁명을 맞게 된다. 1920년에 이르러 마카렌코는 浮浪兒 또는 범법자를 수용하여 教化시키는 교도소 같은 곳의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 그는 스스로 이러한 수용소를 ‘고리끼 기념 콜로니’²⁾라고 이름을 붙이고 8년간이나 지도했다. 고리끼도 이러한 그를 ‘새로운 형의 교육자’라고 극찬했는 바, 실제로 교육 이론가이며 실천가였다. 다시 그는 1928년부터는 ‘첼진스키 기념 콤포나’³⁾의 지도자로 8년간 교육 사업에 몰두하였다.

그는 51세의 젊은 나이로 열차 여행 중 急死했지만, 그의 생애는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명하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했다고 후세의 소련 교육학자들이 평가하였다.

2) 마카렌코의 「集團主義와 教育學」의 理論과 評價

마카렌코는 1938년에 쓴 ‘소비에트 학교 교육의 제문제’라는 논문에서 教育學은 그 성격상 目的性과 변증법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인에게

知識과 함께 情緒的인 개발과 재능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집단적 조직 원리로 실천 가능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 ① 집단과 그 조직성
- ② 집단의 일반적 운동과 그 법칙
- ③ 질서와 규칙과의 체계
- ④ 집단의 美學
- ⑤ 한 집단과 타 집단과의 결합
- ⑥ 집단의 개별적 독자성
- ⑦ 집단내에서의 世代의 계속성

이러한 그의 교육론은 앞서의 크루프스카야가 주장한 집단주의 교육 방법의 우월성과 같은 견지에서 학교 교육의 조직성과 규칙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올바른 소비에트의 교육은 통일적이고, 힘차고 영향력을 갖춘 집단을 창출하는 것을 통하여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는 모든 교육과정이 조직된 통일적 집단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리하여 그 집단의 게게 멤버는 스스로 집단 조직에 의존해야만 한다.

또한 집단의 이익을 충실하게 옹호하고 무엇보다 집단우선주의를 지켜야 한다”(『집단주의와 교육학』, p.36).

특히 그는 아동 교육에 있어서 집단의 위력을 중요시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글에서 명백하다.

“……어린이들은 ‘軍隊式’에 대하여 상당한 동경을 갖게 되며 興奮을 갖는다. 용어도 ‘隊長’이라고 불리고 군대식의 ‘報告’도 한다면 보다 집단적인 정신 함양이 가능하다. 제부의 영향은 크며 집단 행진과 樂隊의 효과도 크다고 본다”(『전개서』, pp.46~47)

이러한 그의 주장은 콤포나(공산주의 청년동맹)와 같은 조직 단체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2) 고리끼(Gorkii, M.)는 1868년에 소련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회주의 혁명 작가이다.

3) 첼진스키(Brzhhezinsky, Z.)는 ‘콤포나’ 교육론으로 유명한 소련의 학자이다. 저서로 *Power and Ideology in the USSR*이 있다.

그는 학생들의 집단 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칙 위반과 괴짜 및 그리고 상찬에 대하여 쓰고 있다. 규칙 위반에서는 규칙을 잘 모르고 위반한 경우 또는 무의식적인 경우는 용서되지만, 알고도 고의적으로 했거나 집단에 대한 반발로 한 경우는 엄한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상벌의 기준은 개인보다는 집단적 가치에서 찾고 있다.

3) 「教育의 目的」論

1937년 8월호 「이즈베스차」에 게재된 논문 「교육의 목적」에는 마카덴코의 교육관을 가장 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그는 人間=共産主義者라는 전제에서 개인이 아닌 집단의 교육만이 유일한 가치이고 교육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集團의 성격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 集團은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노동에서만 아니고 노동의 공동 조직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통일시킨다.

이때의 공동 목적이란 우연적 집합체인 제1차적 집단이 아니라 전 집단의 목적인 것이다. 전체 목적과 개인 목적과의 관계는 우리들의 경우 대립 관계가 아니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이렇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개개 생도의 행동은 그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도 전체 목적의 기준에서 평가될 뿐이다. 이러한 관점이 아동들의 매일 생활과 학교 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② 집단은 소비에트 사회의 일부이고 국가 전체에 대한 제1차적 의무이다. 각 개인은 이러한 집단을 통하여 비로소 사회화가 가능하다.

소련의 규율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의 이익도 의무와 명예라는 개념도 확실하게 나타난다.

③ 집단의 목적 달성, 공동 작업, 집단 의무와 명예는 개개인의 우연적인 기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집단은 羣集과는 다르다. 집단은 사회적 유기체이다. 따라서 제일 먼저 집단과 사회와의 이익을 대표하는 全權을 위임받은 기관이 있어야 한다.

집단은 단순히 이웃과의 교류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舍目的的·집단적 행동의 극히 복잡

한 경험이며 견경·심의·다수결·동지에·복종과 책임이라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교사는 이러한 원칙을 상호간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④ 소비에트식의 집단은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이라는 원칙 위에서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적인 결함이 아니고 세계 혁명의 시대에 사는 인류의 전두적 투쟁 조직의 일부이다”(전계서, pp.213~214).

4. 기타의 教育理論家들

아동심리학의 분야에서는 위고스키(Vygotsky, L.S.)가 그의 「언어와 사고(Thought and Language)」에서 아동들의 언어 발달과 사고 형태에 관한 이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촘스키(Chomsky, N.)가 내세운 언어의 生成文法論과는 달리 피아제(Piaget, J.)의 입장에서 서서 언어의 概念形成論을 중시하고 있다. 즉, 한 개의 개념(단어)은 단번에 획득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들이 사용해 가는 과정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최종(완전) 단계에 이른다는 관점이다. 그는 이러한 단계를 單一概念下의 集團混成語—점층적적인 思考—概念的 思考라는 3단계설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兒童學(Pedology)」(1925)으로 유명한 브론스키(Blonsky, P.: 1884~1941)도 소련의 현대 심리학과 학교 교육론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브론스키 교수는 “한 사람의 생생한 영혼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일깨워 준다”는 영혼주의적 도덕 교육론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도들의 집단주의 교육에서 노동과 직업 훈련의 개념을 도입·개발한 학자로는 샤프스키(Shatsky, S.: 1878~1934)가 있다. 그는 소련 교육학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 문제를 조직적으로 이론화시킨 이론가 ‘공교육에 있어서의 실험적 기초’를 수립한 사람이다. 샤프스키에 있어서 학교란 노동과 유희와 예능 활동 그리고 지식 습득의 총합이었으며 사회와 집단 생활의 부분이었던 것이다. 그는 노동 훈련이 생도들에 의하여 집단과 공동 작업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될 때 가장 가치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믿었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무려 5회에 걸친 소련의 고등교육과 이론에 관한 기획 연재에서 우리들은 극히 부분적이고 개괄적인 소련 교육의 내용을 살펴 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소련의 학교 교육에 관한 특성은 1963년 영국 교육학자 킹(King, E.J)교수가 *Communist Education*이라는 저서에서 밝힌 “공산주의 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교육 목표와 관심을 사상적으로 집중하고 유도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체적인 목표를 위한 전 체제는 항상 당과 소련의 중앙교육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신념이란 독선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신념 체계와 극히 유사하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자신은 모두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바울의 종교적인 열정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도 하겠다.

목표는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새로운 인간상의 수립이고, 내용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가치

관이며, 방법론은 집단주의, 애국주의, 극제공산주의, 생산 활동과 교육 이론의 결합, 조직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등등으로 교육과정의 일사 불란하게 통일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60년대초의 이른바 후루시초프에 의한 修正主義, 1980년대초의 고르바초프에 의한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러한 러시아 혁명 전통의 교육관에도 상당한 변화와 개혁을 점차 안겨 주리라 전망된다. *

<參考文獻>

- 크루프스카야(矢川徳光 역), 生徒の自治と 集團主義, 1980, 東京, 明治圖書.
——, 社會主義と教育學, 1975, 東京, 明治圖書.
크루프스카야(勝田昌二 역), 國民教育論, 1975, 東京, 明治圖書.
크루프스카야(五十嵐顯 역), 幼兒教育と集團主義, 1975, 東京, 明治圖書.
위고스키(柴田義松 역), 兒童心理學講義, 1979, 東京, 明治圖書.
마카렌코(失川徳光 역), 集團主義と教育學, 1983, 東京, 明治圖書.
Zajda, J.I., Education in the USSR, Pergamon Press Ltd., London, 1980.